

## 간경화환자에서 발생한 횡문근융해증 91예의 분석

경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백주은 · 이동원 · 정은영 · 박동준 · 장세호

**목적** : 간경화환자에서 발생한 횡문근융해증은 원인이나 임상경과, 예후에 대해 보고된 바가 없다. 이에 저자들은 간경화환자에서 발생한 횡문근융해증을 분석하고 신부전과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

**방법** : 1997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7년간 경상대학병원에 입원한 간경화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사하여 74명의 환자, 91회의 횡문근융해증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.

**결과** : 대상환자 74명의 평균연령은  $52 \pm 11$ 세 (27-77세)이었고 남자가 53명, 여자가 21명으로 남녀비는 2.5:1이었다. 횡문근융해증이 1회 이상 발생한 환자가 13명 (17.6%)이었으며 이들 중 2회 발생한 환자가 11명, 3회 발생한 환자가 1명, 5회 발생한 환자가 1명이었다. 간경화의 원인으로는 괴사후간경화가 37명 (50.0%, B형 35명, C형 2명), 알코올간경화가 32명 (43.2%). 월슨병에 의한 간경화가 1명, 원인 불명의 간경화가 4명이었다. 이들의 Child-Pugh 분류는 A가 2예, B가 28예 (30.8%), C가 61예 (67.0%)로 C가 가장 많았다. 횡문근융해증의 원인으로는 특별한 유발요인이 없었던 경우가 54예 (59.3%), 자발성 복막염, 폐렴 등의 감염이 있었던 경우가 27예 (29.7%), 과도한 신체활동 후 발생한 경우가 5예 (5.5%), 위장관 출혈에 의한 쇼크로 발생한 경우가 2예, 화상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1예, 과음 후 발생한 경우가 1예, 경련 후 발생한 경우가 1예였다. 44예 (48.4%)에서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였으며, Child-Pugh 분류 (B 12예, C 32예)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고 ( $p > 0.05$ ) 횡문근융해증의 원인이 감염인 경우, 저혈압이 있었던 경우, 간성혼수가 동반된 경우 발생률이 높았다 ( $p < 0.05$ ). 사망한 환자는 25명 (27.5%)이었으며 급성신부전이 있었던 환자가 21명, Child-Pugh 분류가 C인 환자가 24명으로 이들에서 사망률이 높았다 ( $p < 0.05$ ).

**결론** : 간경화환자에서 횡문근융해증은 외상, 허혈, 약물, 전해질 이상 등 일반적인 횡문근융해증의 유발요인이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, 간경화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횡문근융해증에 대한 다른 보고와 비교할 때 급성신부전의 발생률과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. 이는 간경화와 그 합병증 등 기저질환의 심각성 때문으로 생각된다. 간경화환자에서 횡문근융해증의 유발요인과 그 기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.